

영화 배우들이 연극 무대로 돌아오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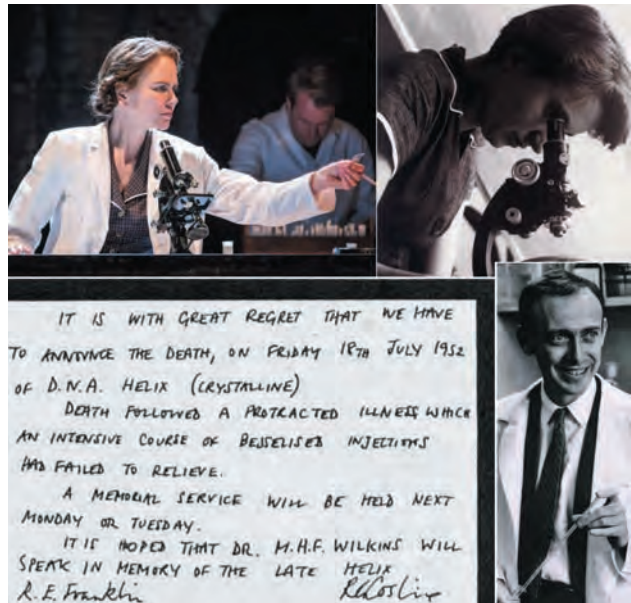
글_김준영(런던통신원, 런던 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제2세대 미디어 이론가인 귄터 안더스(Günther Anders)의 1956년 저서 『인간의 골동성(Die Antiquiertheit des Menschen)』에는 인간과 기술의 격차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다름 아닌 미디어의 발전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앞으로 나가는데 그에 반해 인간 신체의 한계와 사고 및 연산 처리 능력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여기에 덧붙여 공연 문화와 항상 비교 대상이 되었던 영상문화의 발전 속도를 염두해 두고 동서양 연극계에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을 돌아보며 잠시 연극의 골동성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한쪽은 기술의 발전으로 언제나 새롭고 화려한 방식으로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반면 나머지 한쪽은 늘 힘들다며 제자리를 맴돌고 버티는 동안 우리 모두는 연극 무대로부터 출발해 마지막 목표를 영상문화로의 이동으로 꿈꾸게 되는 현실. 그래서일까? 누가 미디어의 위계질서(Hierarchy)를 정해주지 않았지만 소위 잘나가는 영화배우는 자신이 원하지만 하면 언제라도 TV드라마나 연극 무대 정도는 쉽게 이동이 가능하며, 유명한 TV탤런트 또한 경우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영화에 출연할 수 있으며, 연극 무대는 너무나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유명한 연극배우라고 해서 언제나 이 두 매체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로얄셰익스피어컴퍼니(RSC)를 창단하고 영국 국립극장장을 역임했던 케임브리지 출신의 세계적인 연극 연출가 피터홀(Sir Peter Hall) 역시 사망 전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딸 리베카(Rebecca)가 배우 생활의 시작을 연극이 아닌 영화로 선택한 이유를 입문 단계에서부터 영상문화가 가진 미디어 파워를 이용하려 한다고 담담하게 고백한 적이 있다.

과거 이렇게 빠져나간 배우들이 언제 다시 무대로 돌아왔는가? 영화배우들이 무대로 복귀하는 이유는 언제나 자신의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였으며 거기엔 성숙된 연기력을 더 연마한다거나 대중의 눈을 피해 얼마간 '자숙'의 의미를 부여하곤 했었다. 무대가 스타들의 떨어지는 연기력 연습과 반성의 자리였던가? 이제는 이런 출발점을 거치지 않고 단지 영상문화에서 많이 보여져 대중에게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무턱대고 연극 무대에 올라와 가끔은 작품



(시계 방향으로) 니콜 키드먼과 기록 사진

의 완성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이 빠져나간 곳엔 자연스럽게 연극인들 또는 연극계 전체에 공허감이 자리했다. 결국 이런 움직임은 영국이나 브로드웨이에서 한 두 명의 미디어 스타들이 무대에 등장하지 않으면 관객이 찾지 않았던 우울한 과거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영화나 TV등을 통해 알려진 세계적인 스타 배우들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환영받는 방식으로 영국 무대에 돌아오고 있다.

과학 기술자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뭔가 해보고자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Artists Generating Exploration'의 머리글자 'STAGE'라 명명한 극단에서 이들의 세 번째 희곡 「사진 51(Photograph 51)」이 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2015년 연말 런던에서 한 편의 연극이 만들어졌다. 1950년대 초 런던 킹스컬리지(KCL)의 연구소에서 DNA의 나선형 구조를 밝혀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

바로 뒤에 가려진 로잘린드 프랭클린(Rosalind Francklin)의 흑백 사진 한 장! 바로 '사진 51'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남자들이 거의 지배적이었던 연구실에서 그녀의 엑스레이 투시 사진이 그녀도 모르게 주변 과학자들에게 돌고 돌면서 결과적으로 동료 과학자들에게 노벨상이 수여되었지만 그녀의 공로가 사후에 인정되는 드라마틱한 과정을 할리우드 A리스트인 니콜 키드먼(Nicole Kidman) 주연으로 공연이 된 것이다.

당시 웨스트엔드에서 17년 만에 돌아온 슈퍼스타의 등장으로 관객들 주머니 좀 털리겠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감독 그랜데이지(Michael Grandage)는 예전에도 늘 그랬듯이 약 20,000석 이상을 10파운드(15,000원)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훌륭한 배우를 등용해 잘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가격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러 오는 것(At the heart of all our work is a desire to make theatre accessible to everyone, the highest quality at affordable prices).” 바로 이 감독의 철학이었던 것이다. 니콜 키드먼도 감독의 이런 결정에 함께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는다며 자신들의 개런티보다 관객의 향유와 저변확대에 더 가치를 두는 이들이 기특하기만 했다.

그 이후에도 존 말코비치(로즈 극장), 미국 시트콤 <프렌즈> 스타인 매튜 페리(플레이 하우스), 톰 히들스톤(해롤드 핀터) 등 유명한 스타들의 연극 무대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간간히 이어져오곤 했다. 그러다 올해는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조금 비싼 방식(?)으로 스타들의 '리턴' 이 시작되고 있다.

약 6년 전 런던 핀즈베리 파크(Finsbury Park) 지역에 신작, 고전, 그리고 리바이벌 공연을 올리기 위해 소극장 200석, 90석 규모의 스튜디오, 리허설 공간 그리고 카페를 가진 3층짜리 공간이 만들어진 적이 있다. 사실 이 동네 소극장 건물은 2010년부터 극장을 짓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배우 이안 맥클렌(Sir Ian Mckellen)이 지원 사격을 하면서 약 260만 파운드는 공사비용 전액을 모금한다. 오픈 후 꾸준한 성장으로 극장 공간이 모두 대관되면 카페에서 카바레 공연과 음악 공연이 열리기도 했고, 2015년엔 최고의 런던 프린지 극장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랬던 극장이 최근 약 25만 파운드의 예술위(ACE) 지원금이 끊어져 운영이 어렵게 되자 어디서 모여들었는지 스타 배우들이 하나둘 모여 자신들의 비어있는 스케줄에 하루씩 돌아가며 무료 공연을 통해 모금운동을 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동네극장 Park Theatre

저는 이 극장이 문 닫지 않도록 필요한 운영비를 모으기 위해 여기에서 공연을 합니다. 평소 공연 티켓보다 조금 비싸게 판매될 텐데요, 이 돈은 모두 극장을 운영하고 여기에서의 공연이 지역사회에 그대로 봉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매일 10파운드짜리 공연티켓도 있으니, 희망하건대 많은 분이 보러 오셔서 우리의 움직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리안 앤더슨(Gillan Anderson, <X파일>의 FBI 요원 다나 스킨리 역)

올 7월 15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는 세계 초연 'Whodunnit(살인 사건의 정체가 마지막에 밝혀지는 이야기 또는 희곡의 총칭)' 공연에 나레이션은 이안 맥클렌, 주디덴치(Dame Judi Dench)가 참여하고 매일 밤 탐정 역의 배우는 대부분을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독특한 공연의 형식을 갖고 있다. 탐정 역에는 위에서 언급된 질리안을 포함해 미국 배우이자 코미디언 루비 왁스(Ruby Wax), 영국 스탠드업 코미디언 존 비숍(John Bishop), 배우 조아나 룸리(Joanna Lumley)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VIP스타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관객들에겐 어떤 스타들이 어떤 일정으로 출연하는지 공지하지 않고 무대에서 배우가 등장하면서 알려지는 방식을 택해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오래전 '연극열전'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연극 무대에서도 영화 또는 방송계 스타들을 만날 수 있었다. 대중적 관심이 높은 아이돌 가수들도 공연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들이 우리 공연계와 관객에 미치는 직·간접적 그리고 장·단기적인 영향을 심도 있게 연구해 공연 시장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사진 필자 제공